



과일 품질을 높이는 수확적기와 과수원 관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노정호 063-238-6431

수확을 앞둔 가을철, 과수원에서는 병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강한 태풍이나 폭우에 대비하며 좀 더 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신경 써야 한다. 보통 9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가 수확 적기이므로, 9월 초순부터 생산·유통을 준비한다면 알이 굵고 빛깔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다.

잎과 과일을 숙아주어 정상과 비대 돕기

- 봉지를 씌워 재배한 과일은 보통 수확하기 30~40일 전 봉지를 벗긴다. 봉지를 벗기는 시기가 너무 빠를 경우 엽록소가 생성되어 착색이 불량해질 수 있다. 착색을 촉진하기 위해 과일을 가리는 잎은 제거 한다. 그러나 한번에 많은 양의 잎을 제거하면 과일발육과 당도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몇 차례에 나누어 잎을 따야 한다.
- 사과 잎따기는 과일 표면의 착색이 30% 정도 된 시기부터 시작하는데, 1차 잎따기는 수확 30~40일전에 과일에 밀착되어 있는 과충엽을 따주고, 착색이 진전됨에 따라 2~3회에 걸쳐 과일을 가리는 잎 위주로 따준다. 잎따기는 수확 10일전까지 마무리 한다.
- 굴나무는 나무 하나에 너무 많은 굴이 달리면 과일의 크기가 고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늘 속에 묻혀 있는 굴, 병해충에 걸린 굴, 상처난 굴, 크기가 다른 것에 비해 너무 작거나 큰 굴, 위쪽을 바라보는 비정상과는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숙아주는 것이 좋다.

숙기를 판단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수확

- 같은 품종의 과일도 동일한 과원 내에서는 영양 상태와 위치에 따라 익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충분히 익은 과일부터 먼저 수확하여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확한 수확 시기 판정이 필요한 과일의 경우 숙기 판정용 컬러 차트와 색도계를 이용하면 좋다.

- 사과 수확시기 결정은 출하시기, 저장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저장용은 즉시 출하용보다 일찍 수확한다. 재배지역과 만개후 일수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며 최종적으로는 전분지수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 단감의 수확은 품종 고유의 색깔로 착색되어 당도가 충분한 완숙된 것부터 3~4회로 나누어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까지 수확한다. 단감 중에서도 국내 재배면적이 많은 부유는 감의 적도 부위가 색도계 4이상일 때 수확하는 것이 알맞다.
- 그리고 배 신고는 만개 후 약 160일이 지난 다음 크기가 큰 것부터 3~5일 간격으로 2~3차례 나누어 수확하는데, 장기 저온 저장용은 색도 5, 단기 저온 저장 및 CA저장용은 색도 6, 즉시 판매용은 색도 7이상일 때 수확하면 된다. 특히, 금년 생육후기에는 가뭄, 폭염 및 열대야의 기상조건으로 숙기가 다소 빨라지는 경향이므로 수확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10월 상순 이후 극조생온주밀감은 당도가 8브릭스 이상, 조생온주밀감은 9브릭스 이상, 착색도 60% 이상인 것만 수확해야 한다.

가을거름을 주어 잎과 뿌리 기능 증진

- 수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거나 거의 끝난 과수원은 내년도 재배를 위해 가을거름 시용여부를 고려한다. 가을거름은 수확 후 부족되는 성분을 보충해줄 필요가 있을 때 시용하며 사과의 경우 질소비료 위주로 사용한다. 사과는 금년 봄철 저온으로 착과량이 적어 웃자란 가지가 많거나 수세가 강한 경우는 가을거름 주기를 생략한다. 수세가 약한 나무 위주로 시용하는데 시용량은 질소6kg/10a 정도 준다. 수세가 매우 약해 겨울철 동해가 우려되는 과원에서는 5% 농도로 요소 엽면시비를 한다. 굴나무는 질소 위주의 엽면시비를 2~3회 해준다.
- 특히 배 과수원은 다 자란 나무를 기준으로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 사이(과실 수확 직후)에 가을거름을 10a당 요소 9.3kg 주어야 한다. 하지만 배나무 잎 색이 진하거나 새 가지 발육이 늦게까지 계속되는 과수원에는 거름 주는 시기를 늦추고 시용량을 줄인다.
- 감의 경우 부유는 수확 30일 전인 10월 상·중순에 가을거름을 주어 잎의 기능을 높이고 과일 비대를 도와주는 것이 좋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준비 사항

- 과일 수확기인 9월은 우리나라에 강한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이므로 과수원의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지주대를 설치하고 유인물로 나무를 고정해야 한다.
- 매년 태풍이나 폭우에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과수원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그물눈 4mm의 망사로 파풍망을 설치하면 좋다.
- 또한 기온이 높고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병해충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과종별 주요 병해충 발생 양상을 파악하고 초기에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과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